

영어 영역

제 3 교시

1

안녕하세요, 오르비에서 KUDO로 활동하고 있는 KUDO라고 합니다. 이번 자료는 교육청 빈칸추론 문항 중 제가 직접 선별한 문항들과 그에 대한 해석과 해설 자료입니다. 선별 문항들의 해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시한 해석본을 붙여넣기 한 것이고, 해설의 경우 제가 현장에서 시험을 보았다면 어떻게 풀었을 지를 줄글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평가원 문항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2. Temporal resolution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e context of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temporal density of remotely sensed imagery is large, impressive, and growing. Satellites are collecting a great deal of imagery as you read this sentence. However, most applications in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 Meteorologists may require visible, infrared, and radar information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urban planners might require imagery at monthly or annual resolution; and transportation planners may not need any time series information at all for some applications. Again, the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 should _____ . Sometimes researchers have to search archives of aerial photographs to get information from that past that pre-date the collection of satellite imagery. [3점]

* meteorologist: 기상학자 ** infrared: 적외선의

- ① be selected for general purposes
- ② meet the requirements of your inquiry
- ③ be as high as possible for any occasion
- ④ be applied to new technology by experts
- ⑤ rely exclusively upon satellite information

위의 문항은 2017 수능 32번 문제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현장에서 풀었는데 비교적 수월하게 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문장에서 Temporal resolution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게 주기 해상도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게 뭔지를 알 리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인공위성과 관련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를 모르 겠죠. 인공위성이 많은 양의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적으로 여기까지 읽어서는 뭘 개소리야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However부터 읽어보면, 많은 적용에 있어서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 즉 이 Temporal resolution이란 게 무조건 fine-grained할 필요는 없습니다. fine-grained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좋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Meteorologists는 이러한 Temporal resolution이 필요하고, urban planners는 저러한 Temporal resolution이 필요하고, transportation planners는 그러한 Temporal resolution이 필요하 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무엇이냐? 직업에 따라 필요한 Temporal resolution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겁니다. 다음 문장에 Again, 즉 똑같은 소리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Temporal resolution은 빈칸 해야 한 답니다. 따라서 답을 적으라고 하면 무엇이냐? "직업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답은 2번, "당신 연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빈칸 뒤의 문장은 못 알아먹었는데 사실 문제 푸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설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청 문항으로 가보죠.

1. ③

[해석]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적 속성과 부차적 속성을 구분했다. 본질적 속성은 그것이 없다면 한 사물이 그것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속성이고 부차적 속성은 사물의 존재가 아니라 사물의 존재 양태를 결정하는 속성이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인 인간 존재에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의 이성은 소크라테스의 존재에 본질적이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창코라는 소크라테스의 속성은 단지 부차적이라고 생각했다. 들창코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존재 양태의 일부이지만 그의 존재에 본질적이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의 이성을 제거하면 그는 더 이상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형수술을 시키면 그는 코를 성형한 소크라테스이다.

[해설] 첫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essential과 accidental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essential은 그것이 무엇이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accidental은 그것이 어떠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rationality가 essenti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rationality는 그가 소크라테스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반면 소크라테스가 snub-nosed인 것은 accidental이라고 합니다. 그냥 소크라테스가 어떻냐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소크라테스의 이성을 없애면 빈칸이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성형을 해준다면, 즉 소크라테스의 snub-nosed를 없애면 그냥 코를 성형한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rationality가 있어야 소크라테스라고 앞에서 진술했었으니, rationality가 없으면 소크라테스가 아니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he's no longer Socrates입니다.

2. ①

[해석] 나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기울어지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래의 취향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쓴다. 그들은 이웃들의 관심이 좋은 차의 소유와 훌륭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대중의 의견에 실제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힘이자 행복의 원천이다. 환호하는 대중에 지나치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명백히 반사회적이지 않은 한 그들의 자발적인 취향을 따라야 한다.

[해설] 첫 문장에서 다른 사람 의견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시로 이웃들의 respect가 좋은 차와 좋은 저녁을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역접인 However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빈칸 문장에는 다른 사람 의견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빈칸에 실제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힘이자 행복의 원천, 즉 좋은 것이니까 빈칸에는 다른 사람 의견이 들어가면 되 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 the public opinion입니다.

3. ⑤

[해석]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의 유명한 회화인 모나 리자는 존경을 요한다. 우리는 원 거장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기교, 가치, 역사적 의미를 감상하도록 기대된다. 복제품을 당신의 TV 위에 놓

아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벽지와 거실을 제외하고는 언뜻 보기에 그 이미지가 원작의 이미지와 놀라울 만큼 유사해 보일 것이다.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은 그 표상과 한때 그것이 방을 공유했던 다른 위대한 예술 작품과의 관계를 빼앗긴다. 우리가 감탄하고 진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려는 기대는 제거된다. 우리가 이미지를 바라보는 맥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이미지에 반응하는가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가 논의를 위해 이미지를 제시할 때 그 이미지를 본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래의 맥락은 당신의 배경연구와 조사에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준거의 틀이다.

[해설] 모나리자는 존경스럽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조물을 TV 위에 두면 원작과 같이 보이지만 벽지랑 거실로 둘러싸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문장은 위대한 작품이 다른 명작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표상과 다른 명작들과의 관계를 박탈당한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context, 즉 맥락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논의를 위해 이미지를 제시할 때 그 이미지를 원래의 context로부터 떼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그것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context는 배경연구나 조사할 때 꼭 기록되어야 할 빈칸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은 무엇일까요? context가 명작을 볼 때에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으니 빈칸에는 명작을 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an important frame of reference가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참조의 중요한 틀인데요. 참조란 명작을 감상할 때 무언가 덧붙여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뜻하겠죠.

4. ③

[해석] 여기 두 개의 곱하기 문제가 있다. 문제 1: $1 \times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times 8$ 의 계산 값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 2: $8 \times 7 \times 6 \times 5 \times 4 \times 3 \times 2 \times 1$ 의 계산 값은 무엇인가? 답을 계산하는 대신에 2 또는 3초간 대략 어렵잡아 보아라. 만일 우리가 이 문제들을 나란히 놓는다면 그 숫자들은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논리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답은 둘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택한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하나에만 답을 하라고 요구받으면 그 답들은 평균 500정도이다. 그러나 그 숫자의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 답들은 평균 2,000을 충분히 넘는다. 두 번째 문제에서 첫 세 개의 숫자들의 계산 값은 크고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작으므로, 엄청나게 다른 예상치를 가져온다. 이것은 처음의 정보가 다음에 나오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설]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오름차순으로 곱하는 것과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내림차순으로 곱하는 것을 비교해봅시다. 사실 결과는 같죠. 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들이라서 지름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를 가능해보라 하면 대략 500을 외치고, 두 번째를 가능해보라 하면 2,000을 넘게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작고, 두 번째는 시작이 큰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빈칸에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the first information has a large influence on what follows가 됩니다.

5. ⑤

[해석] 난청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청각에 주로 사용되는 뇌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

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신 그 뇌의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캐나다 연구자들은 뇌가 손실된 감각을 강화를 통해서 보상한다는 이론을 개발했고, 귀머거리 고양이에게 이 이론을 실험했다. 그들은 주변 청각에 사용되었던 뇌의 부분이 대신에 주변 시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실험 내용은 고양이의 정상적인 시력 가장 자리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은 빛을 탐지하는 귀머거리 고양이의 뇌의 부분이 주변 소리를 탐지하는 뇌의 부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는 매우 효율적이고 어떤 공간도 낭비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 연구를 이끌었던 Dr. Stephen Lomber가 말했다.

[해설] 듣는 곳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들이 못 듣는다고 맛이 가지는 않는답니다. 다른 용도를 쓰인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귀가 안 들리는 고양이들은 peripheral hearing을 담당하는 부분이 대신에 peripheral vision을 보강하는 데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Stephen Lomber라는 분은 뇌는 효율적이어서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정도만 봐도 빈칸에는 어떤 내용의 이론이 들어갈지 보입니다. 빈칸에는 뇌가 청각 부분을 시각 보강에 이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compensates for absent senses with enhancement가 됩니다.

6. ③

[해석] 제2차 세계 대전 중 Henry Beecher라는 의사가 이탈리아의 Anzio 해안 교두보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201명의 부상병들을 치료했다. 자신의 치료 내용을 기록하면서, 부상병들이 관통상에서부터 넓은 부위의 외과적 창상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단지 4분의 3만이 통증 치료제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eecher는 이 관찰 내용을 온갖 종류의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민간인 환자들과 비교해 본 후, 민간인 부상자들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보다 더 많은 의약품 처방을 요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Beecher는 상처가 심각한 정도와 고통의 강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마음이 부상에 주는 의미가 고통 수준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병사들에게 부상은 전투에서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해설]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사가 2차 세계 대전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데 이들은 아픔에도 3/4만이 통증 치료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민간인 환자들의 경우는 부상병들에 비해 더 많이 약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빈칸이 고통의 수준 즉 얼마나 아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대체 무엇 때문에 부상병이 덜 아픈 것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해답은 빈칸 뒤의 문장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부상병들은 부상을 당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건강한 병사들은 전쟁에 계속 참여하여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부상병들은 싸울 수 없으므로 집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부상에는 병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칸에 들어갈 고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the meaning our minds give to an injury가 됩니다.

7. ①

[해석]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목수, 제화공, 대장장이, 도선사를 보면서 지혜의 교환을 배웠다. 그들의 일은 체계적

으로 규칙을 적용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지고 일하는 재료는 너무 고르지 못했고, 각각의 과업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인이 물질세계에 입각하여 행동을 취할 때 하는 선택이 시민들이 사회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지식의 종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Lesbos 섬의 석공들이 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매료되었다. 석판으로부터 둥근 기둥을 깎아 내고 있어서 원기둥의 둘레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던 석공들에게 보통의 직선자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자를 구부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자를 구부리는 것)이 그 석공들이 했던 것이다. 그들은 납으로 구부러지는 자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오늘날 줄자의 시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실용적 지혜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해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깐 material들이 irregular하고 각각의 일들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masons의 자 사용법을 멋지게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column의 둘레를 재기 위하여 본래 구부러지지 않는 자를 flexible ruler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tape measure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빈칸을 아는 것이 practical wisdo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칸에는 그렇다면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즉, 상황에 맞도록 물건을 개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 how to bend the rule to fit the circumstance가 됩니다.

8. ㉓

[해석] 수렵채집인 조상들에게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끝까지 해 내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구가 필요할 때 그저 손에 잡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도구 제작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유익했을 것인데 그 개발로부터의 이득은 수년 이후에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렵채집인의 삶의 많은 부분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 때문에 계획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영양 뼈를 바라보면서 "사실 수요일은 내가 꿀을 따는 날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좋은 반응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렵채집인에게 있어서 삶은 그것(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극)이 지나가는 사냥감이든, 지나가는 사냥감의 부족함이든, 다른 사람들에 의한 공격이든, 집단의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든, 혹은 무수한 다른 가능성이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극에 대한 일련의 긴급한 즉흥적 행위였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계획을 단념하고 무엇이 우연히 발생하든 그것에 대응하여 활기차고 자동적인 신체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했을 것이다.

[해설] 조상들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hunter-gatherer의 삶은 unplannable 하답니다. 예시로 든 것은 wildebeest의 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수요일은 꿀 따는 날이니까 저것들을 사냥할 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unter-gatherer의 삶은 urgent improvisations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하고 energetic, spontaneous, physical response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칸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갈까요? 바로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가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abandon plans at the moment's notice가 됩니다.

9. ㉓

[해석] 수 십 개의 연구가 자기감독의 소모적인 성질을 증명해 왔다. 예를 들면, 결혼식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주문하는 일과 같은 까다로운 선택과 거래를 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은 힘든 선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하는 것을 더 못했다. 한 연구에서, 몇몇 사람들은 아픈 동물에 대한 슬픈 영화를 보는 동안 자신들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후, 그들은 눈물을 마음껏 흘리도록 허락된 사람들보다 더 적은 신체적인 인내를 보여주었다. 그 연구는, 우리는 폭넓은 다양한 상황, 즉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인상을 관리하는 것, 공포에 대처하는 것, 소비를 통제하는 것, "흰색 곰에 대해 생각하지 마"와 같은 단순한 지시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들에서 자기 통제력을 소진시켜버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설] 여러 연구가 self-supervision의 빈칸이라는 nature를 말합니다. 빈칸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선택들을 하도록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문제에 집중하여 푸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 사람들은 슬픈 영화를 보는데 감정 표현을 억제하라고 요구 받았습니. 후에 그들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던 그룹에 비해 physical endurance가 떨어지는 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self-control은 burn up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은 어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자기 조절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에는 self-supervision은 사용에 한계치가 있는 성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exhausting, 소모적인 성질이 됩니다.

10. ㉓

[해석] 만족은 무관심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만족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분노나 좌절, 짜증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당신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과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당신은 더 나아지거나 더 많이 성취하기를 열망한다. 당신은 더 이상 성장하지도 못하고 당신의 세계에 영영 어떤 영향도 더 미치지 못하면서 당신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나아지기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열망의 불만족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로 이끄는 매우 건전한 자극일 수 있다. 성 Augustine이 말했듯이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아닌 것에 도달하기를 갈망한다면 항상 지금의 당신을 불만족스러워 해라."

[해설] 살짝 헷갈릴 법 한 지문인데요, 우선 만족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접의 But이 있는데요. 그러면 빈칸에는 뭔가 반대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를 떼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확인은 하지 맙시다. 계속 읽어보면, 당신은 further growth나 further effects for good on your world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만족하려면 further growth나 further effects for good on your world가 있어야겠죠? 이것이 열망의 불만족이고 이것은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이끄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성 Augustine은 현재는 당신이 아닌 무언가로 도달하려면 항상 불만족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살짝 헷갈렸었습니다. 이것이 불만족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란 소리 아닌

가? 근데 이러면 앞의 내용과 반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시 이해 해봅시다. 앞의 내용은 만족하려면 머무르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 Augustine의 말은 이를 보충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불만족을 하여 미래를 바꾸어라, 그러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가 바뀌면 만족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빈칸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빈칸 문장의 that은 accepting your present가 되겠죠. 이것이 빈칸과 양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를 인정하는 것은 변화를 주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wanting the future to be quite different입니다.

11. ④

[해설] 우리는 선천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감각 경험의 관점에서 우리는 단지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전에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그러한 전후의 연쇄과정을 봤던 것을 기억한다. 예를 들면, 돌이 창문을 치고 그 후에 창문은 깨진다.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불리는 제삼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다. 창문을 치는 돌이 창문이 깨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돌의 비행이나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경험되지 않는다. 경험은 인과관계 개념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원인과 결과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결코 읽혀질 수 없는 범주이며 따라서 그러한 연결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전의 정신적 기질에 의해 그 경험으로 가져가져야 하는 범주이다.

[해설] 교육청 빈칸추론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저도 해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별 5개짜리 문제이니 차근차근 읽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보통 원인과 결과의 관점으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냥 어떤 사건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before-and-after sequences를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 없는 두 사건이 전후로 일어난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시를 줍니다. 돌이 창문을 치면 창문이 깨집니다. 우리는 causation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causation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ausation은 돌이 날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과 달리 경험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causation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causation을 이용하여 경험을 interpret하는 것이죠. 여기서 빈칸 문장이 나옵니다. cause and effect는 경험에서 읽힐 수 없는 categories들이고, 따라서 연결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빈칸 되어야 한답니다. 정말 어려운 빈칸이네요.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나온 문장을 되새김질해봅시다. 경험이 우리에게 causation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causation을 이용하여 경험을 이해합니다. 연결의 원인을 추정하려면 빈칸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험을 이해하다 = 연결의 원인을 추정하다입니다. 그니까 돌을 던져서 창문이 깨지는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돌을 던져서 창문이 깨진 상황이 연결되는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란 겁니다. 둘 다 결론이 causation이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causation을 이용하여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니깐, 연결의 원인을 추정하려면 causation을 이용해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causation이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앞선 문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경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나왔었죠. 즉, 경험이 causation을 갖고 와서, “자 이걸 쓰도록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causation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이란 것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빈칸에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험이 causation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causation이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 해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스스로 causation을 갖게 되어 경험 해석에 사용한다.”를 넣으면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도 알았으니 이제 보기에서 이 내용이 담긴 것을 찾아 봐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보기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 봐야겠네요. 1번, cause and effect는 인류의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배워져야 한다? 스스로 가지고 경험 해석에 사용한다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2번, cause and effect는 우리의 상상력 부족에 대한 보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상상력 부족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3번, cause and effect는 각각의 독립체로서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나온 내용에서 cause랑 effect가 그저 전후 관계니까 3번이 답이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빈칸 뒤에, 연결의 원인을 추궁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원인과 결과를 전후 관계로 보는 것은 두 사건을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 없는 별개의 두 사건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애초에 둘을 구별한다는 것은 connection의 원인을 밝혀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 cause and effect는 우리의 사건의 정신적 기질에 의해 그 경험으로 가져가져야 한다? 말도 어렵네요.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건의 정신적 기질에 의해를 무시해보고, cause and effect가 경험으로 가져가져야 한다는 것을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스스로 causation을 갖게 되고 이를 경험 이해에 쓰는 것입니다. 일단 의미가 상통합니다. cause and effect가 경험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cause and effect를 경험으로 데리고 가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죠. 이제 사건의 정신적 기질에 의해 파트를 넣어봅시다. 사건의 정신적 기질? 기질은 우리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정신적 기질은 그냥 성격 성향으로 바뀌도 무방해 보입니다. 사건의 성격, 성향에 의해 causation이 경험으로 가져가진?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다. 우리의 성향은 곧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문에 있었던 experience force the concept of causation과 반대됩니다. 즉 정답의 내용과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분석 끝에 4번이 정답 보기임을 깨달았네요. 5번을 마저 읽어나 봅시다. cause and effect는 그들 자체로 독립적인 감각 경험으로 여겨져야 한다? 터무니없습니다. 이렇게 무리 없이(?)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네요.

12. ④

[해설] 일부 미디어 사회학자들은 텔레비전이 가족의 대화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즉, 다큐멘터리, 연속극,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가족 구성원 간에 활발한 토론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TV를 함께 시청하는 것은 가족들을 동일한 가정 공간에 데려오는 중요한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양질의 가족 대화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요점을 간파한다. 배우자와 함께 둘 다 반쯤은 TV를 보고 있다면,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은 정말 배우자와 적절한 논의를 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은 마음과 감정을 활발하게 하는 잠재력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매체인 반면에 대화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능동적인 형태의 관계 맺음이다.

[해설] 일부 media sociologists는 TV가 가족 대화를 망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빈칸이란 점을 간과했다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TV가 가족 대화를 망친 것이 맞다는 것이겠죠?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당신이랑 딸이 TV를 보면서 진중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TV는 가족 대화를 망쳤습니다. TV를 보면서도 active form of engagement with other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빈칸은 TV를 보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what a quality family conversation looks like가 됩니다.

13. ⑤

[해석] 갈수록 고립이 심화되는 개인주의로의 움직임이 한 동안 진행되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정신분석학이 개인의 자기 형성이라는 이상에 새로운 심리학적 요소들을 주입하였던 20세기 중반 이래로 진행되어 왔다고 일부 사회 비평가들이 주장하곤 했다. 이를테면, 부의 축적,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보다는 정서적인 행복, 행복의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쾌락의 추구가 성공과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실현에의 집중은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전통적 기준으로부터의 이탈로 여겨졌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예를 들어, 부의 축적, 지위, 또는 권력과 같은) 대체로 외면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면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반면에, 20세기 후반의 자기형성은 상당히 더 규정하기 힘들고 다양한 상태의 자아실현 추구를 포함한다. 자아실현에 대한 강조의 등장과 더불어, 자기형성은 끝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즉,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변화하는, 주관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다.

[해설] 첫 문장은 해석을 해도 된 소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social critics들이 하는 말들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self-fulfillment는 성공에 대한 평가의 전통적 기준에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후에 self-making이 19세기, 20세기 초와 20세기 후반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은 이전의 external, measurable했던 기준과 달리 몹시 elusive, variable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self-making에는 end-point가 없다고 하네요. 즉 빈칸에는 self-making의 기준은 다양하고 특정한 끝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continuously pursue shifting and subjective criteria for success가 됩니다.

14. ⑤

[해석]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어떻게 터득했는지 생각해 보라. 커브 길을 도는 기술을 숙달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언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할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언제 그리고 얼마나 세게 사용해야 할지를 점차 배우게 되었다. 커브 길은 다양한데, 배우는 동안 경험한 가변성은 접하게 되는 그 어떤 커브 길에서도 이제는 적시에 적절한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이상적인 이유는, 굽은 길을 돌 때마다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 즉 편안하게 도는 적당한 보상 혹은 브레이크를 너무 세거나 충분한 세기로 밟지 않을 경우 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적당한 벌을 받기 때문이다. 커다란 선박을 조종하는 도선사가 직면하는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통상적이지만,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분명한 결과 사이의 오랜 지연 때

문에 순전히 경험만으로 기술을 습득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전문가가 직관적인 전문 기술을 터득할 기회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질적으로 연습할 충분한 기회뿐만 아니라 피드백의 질과 신속성에 달려 있다.

[해설]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방식을 어떻게 터득했는지 생각해봅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배웠나보죠? 이러한 조건은 스킬 터득에 있어 이상적이라는데, 그 이유는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harbor pilot이 큰 배를 조종하는 스킬은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action과 noticeable outcomes 사이에 딜레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직관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충분한 연습 기회와 더불어서 본질적으로 빈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이 행동과 결과 사이에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명확하면 스킬 얻기가 용이하다는 앞선 내용을 보아, 빈칸은 피드백이 얼마나 빠르고 잘 이루어지느냐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the quality and speed of feedback입니다.

15. ①

[해석] 우리가 도구와 맺는 단단한 결합은 양방향으로 형성된다. 기술이 우리 자신의 확장물이 되는 바로 그 때, 우리는 기술의 확장물이 되어 간다. 목수가 망치를 손에 잡으면 그는 그 손을 망치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손은 못을 치고 뽑는 도구가 된다. 병사가 쌍안경을 눈에 대면 그는 렌즈가 보도록 허용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 그의 시야는 먼 곳까지 미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된다. 타자기에 대한 니체의 경험은 기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특히 좋은 사례를 제공해 준다. 그 철학자는 그의 타자기가 '나와 같은 사물'이라고 상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그것과 같은 사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즉 그의 타자기가 그의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차렸다.

[해설] 우리는 사물과 양방향 extension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예시로 목수가 망치를 손에 잡으면 손은 이제 못을 치고 뽑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고, 병사가 쌍안경을 이용하면 그 눈은 이제 가까운 것은 볼 수 없는 눈이 됩니다. 니체와 타자기의 경험은 빈칸을 잘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그는 타자기가 자신과 같은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자기와 같은 것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빈칸은 무엇일까요? 앞선 예시와 뒤의 니체의 경험은 모두 도구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도구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따라서 답은 1번, technologies exert their influence on us가 됩니다.

16. ①

[해석] 지식을 얻으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은 연구자들이 야구 경기 반 이닝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것을 열성적인 야구 팬 한 집단과 덜 열성적인 야구 팬 한 집단에게 읽도록 주었던 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후에 그들은 피실험자들이 그 반 이닝을 얼마나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는지를 시험했다. 열성적인 야구 팬들은 주자가 진루하고 주루 플레이가 득점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경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억을 구조화하였다. 어떤 이는 거의 그들이 마음속의 세부 경기 기록지를 읽어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덜 열성적인 팬들은 경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다 적게 기억했고 날씨와 같은 피

상적인 상황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경기에 대한 상세한 내적 개념 작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몰랐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학습하고 있는 것을 내면화하는 개념적 구성 체계 없이는 그들은 매우 잘 잊어버렸다.

[해설] 어떤 연구를 통해 빈칸이라는 속담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우선 야구광들과 야구광이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서 야구 경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 것입니다. 야구광들은 그 경기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였지만 야구광이 아닌 사람들은 그 게임의 중요한 사실들을 더 적게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즉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구 경기 내용 기억을 더 못한다는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칸의 속담 내용은 “뭘 알아야 기억하기 쉽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답은 1번, it takes knowledge to gain knowledge가 됩니다.

17. ②

[해석]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고, 그래서 그들은 진화하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개념을 단지 보충되지 않은 이상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사전은 본성이 내재적인 특성이거나 사람 또는 사물의 기본적인 구성 즉, 그것의 본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내재적인 특성이거나 본질이 정말로 변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비유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이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씨앗이 나무로 성장할 때 그것의 내재적인 특성은 변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무가 되기 위한 잠재력은 언제나 씨앗 안에 내재되어 있다. 씨앗이 나무로 성장할 때 그것은 씨앗의 고유한 본성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실현되는 정도의 변화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가 될 잠재력을 지닌 씨앗처럼 인간의 본성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들의 연속체이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본성의 변화 없이 원시적인 상태에서 문명화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다.

[해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주죠. 씨앗이 나무로 성장할 때 그 내재적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될 잠재력은 씨앗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로 성장할 때 그 본성 속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과 같이 우리는 성장할 때에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빈칸에는 본성에는 잠재력이 깃들여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 not a static thing but a spectrum of potentials가 됩니다.

18. 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보는 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은 협상가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그들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또한 감정을 이입하여 그들의 관점의 힘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는 감정의 강렬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들을 현미경 아래 놓여 있는 딱정벌레처럼 연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신은 딱정벌레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당신은 그들의 관점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판단을 보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의 관점이 옳다고 믿는 만큼

이나 강하게 그들이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은 테이블 위에서 시원한 물 절반이 담긴 유리잔을 볼지도 모른다. 당신의 배우자는 비싼 가구에 자국을 남길 것 같은 반이 비어있는 지저분한 유리잔을 볼지도 모른다.

[해설] 다른 이들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믿는 emotional force를 느껴야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etles를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빈칸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ry on their views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말들의 연속이네요. 빈칸에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빈칸에는 beetles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 beetle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 what it feels like to be a beetle이 됩니다.

19. ①

[해석] 인간의 삶은 자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존엄이자 가치인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도덕적인 접근의 근간이다. Charles Beitz가 그의 유명한 저작인 ‘정치 이론과 국제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만사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자기 이익의 요구를 묵살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 이어진다. Beitz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이 입장은 관련된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행위 주체가) 공정하기만 하다면 그 어떤 주체에게도 받아들여질 근거에서 행동 방침, 정책, 규칙, 제도를 우리가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해설] 인간의 삶은 자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Charles Beitz는 자기 책에서 자기 이익을 무시하고 take a moral point of view towards human affairs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우리의 행동을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련된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빈칸인 그 어떤 주체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에서 courses of action, policies, rules, and institutions를 요구합니다. 일단 빈칸 문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잘 이해해봅시다. 위에 나열한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빈칸인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체들은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만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ourses of action, policies, rules, and institutions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겠지요? 따라서 주체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만인을 생각하는 주체들이어야 이것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만인을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인을 생각하는 주체들이 용납할 수 있는 courses of action, policies, rules, and institutions만이 존재해야겠지요. 그러므로 빈칸에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만인을 생각하는 이란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impartial, 치우치지 않은, 이것이 됩니다. 곧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라는 뜻이겠지요.

20. ⑤

[해석] 새롭고 신기한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행복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시적이다. 즐거움은 익숙한 소비 흐름에 의존하는 불변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변화에 의존하는 요소를 가지기도 한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새로운 소비 품목이 일상의 소비재 묶음의 일부가 되면 참신함에 대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전반적인 만족감은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아침 식사에서 새로운 종류의 시리얼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즐거움을 더하겠지만, 결국 아침 식사에 대한 우리의 즐거움은 평상시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소득과 물질적인 수준이 상승하면서 우리의 기대치 또한 상승한다. 증가하는 소득에 의해 가능해진 두 번째 자동차의 구매는 우리의 주관적 행복을 증가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열망이 상승하고 두 번째 차는 우리의 기대 소비의 일부가 된다. 우리의 기대와 실현 사이의 간격 축소가 우리의 주관적 행복을 평상시의 수준으로 되돌린다.

[해설] 주관적 복지는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변화에 의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건이 그저 일상적인 소비재 묶음이 되어버린다면 그 행복은 없어지고 전체적 만족은 기존의 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새로운 시리얼도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더해주겠지만 아침을 즐기는 것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소득과 물질적 기준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기대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소득 증가에 따라 두 번째 자동차를 사는 것은 주관적 복지를 증가시켜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열망이 상승하게 되어 두 번째 차는 그저 우리의 소비 기대치의 일부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필자가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물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곧 기대치의 기준이 상승하게 되어 그 물건들은 그저 일반적인 것들이 될 뿐이고, 그에 따라 증가했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빈칸 문장을 읽어봅시다. 빈칸은 우리의 주관적 복지를 정상치로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주관적 복지는 기쁨이니, 빈칸에는 새로운 물건들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줌에 따라 기대치의 기준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보기를 하나씩 과해쳐봅시다. 1번, 우리의 소득이 구매하는 힘을 잃고 있다는 깨달음? 아닙니다. 우리는 소득을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도리어 기쁨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에서 벗어납니다. 2번, 소득과 열망하는 것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소득을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열망 간의 격차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새로운 상품의 반복적 이용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 너무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4번,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해 영구히 감소하는 소득? 터무니없네요. 5번, 기대와 실제 간의 격차 감소? 우리에게 필요한 빈칸 내용은 새로운 물건들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기대와 실제 간의 격차 감소가 무슨 뜻일까요? 기대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실제로 샀느냐 사지 못했느냐입니다. 근데 이 둘 간의 격차가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새로운 물건들을 더욱 많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의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1. ④

[해석] 우리는 습관이 의도를 뒤바꾼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의도와 습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도 가능하다. 습관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완전한 우연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러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오후 공원 주변을 걷고, 매번 오리 연못을 지나가는 특정한 길을 따른다고 하자.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사람들이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처음에 완전히 임의로 그저 그 길을 걸었고, 다음 날 똑같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내지 못했다. 이제 습관이 형성된 후, 내가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 오리가 갑자기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나는 결국 본질적으로 그저 우연이었던 것으로부터 의도를 추론한 것이다.

[해설] 우리는 습관이 의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연히 습관이 시작했는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의도를 work out 할 수 있다고 합니다. work out은 '산출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from이라는 전치사를 통해 행동에서 의도를 뽑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가 나옵니다. 공원 주위를 걷고 오리 연못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나는 사람들이 오리에게 먹이 주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때문이 아니고 우연히 오리 연못을 지나게 되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리 연못을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다음 날도 그냥 오리 연못을 걸은 것이죠. 그렇게 습관이 형성된 후에 이유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칸입니다. 빈칸에는 우연히 습관이 형성된 이후에 이유를 찾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inferring intention from what was essentially just chance입니다.

22. ⑤

[해석] 고객의 욕구는 대체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상위 수준의 묘사로 표현된다. 그것들은 보통 형용사로 진술되는데 본질적으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혜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흔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믿을 수 있는', '효과적인', '튼튼한', '신뢰할 만한' 혹은 '복원력이 있는' 것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면도기 사용자들은 제품이 '내구성이 있고 튼튼한' 것이기를 원할 것이다. 이 단순한 말들이 고객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나타낼지라도 여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점이 있다. 그 말들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정확한 진술이며 디자이너, 개발자, 기술자들에게 고객들이 '내구성이 있는' 또는 '튼튼한' 이라는 말을 통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내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만약 기술자들이 면도기를 좀 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면, 과연 그들은 면도날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휘어짐에 견디도록, 혹은 지속적인 습기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할 것인가?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하나라도 '내구성이 있는'이라는 말에 대한 고객들의 진정한 기준을 만족시키겠는가?

[해설] 소비자의 필요는 high-level 묘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형용사로 표현되고 특정한 이익을 imply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중요한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빈칸이고 제작자들에게 그 형용사들이 정말로 뭘 말하는 것인지를 해결해야 하는 불가능한 일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durable이 예시인데요, 뒤의 문장들에서는 durable이 대체 될 말하는 것인지 통 알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무언가를 적당한 양을 넣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빈칸에는 제품이 어떻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 imprecise statements open to interpretation입니다.

23. ⑤

[해석] 미국식 영어로 칭찬하는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국식 영어로 하는 칭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독창성의 거의 완전한 부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방대한 언어자료의 초기 연구에서 칭찬의 대상과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 항목 둘다에 있어서 놀라운 반복성이 드러났다.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에서 규칙성이 모든 수준에서 존재하고 칭찬은 사실상 공식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칭찬들이 그것들의 긍정적인 의미론적 가치를 위해 형용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료에 있는 모든 칭찬의 80퍼센트를 형용사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72개의 긍정적인 형용사가 자료에 나타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72개의 형용사들 중에서 단지 5개(멋진, 좋은, 아름다운, 예쁜, 그리고 훌륭한)의 형용사만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형용사가 자료에서 단지 한 두 번만 나타나는 반면에 이러한 5개의 형용사는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서 언어자료에 있는 모든 형용사적인 칭찬 중에서 3분의 2가 단지 5개의 형용사만을 활용하고 있다.

[해설] 미국 영어의 칭찬은 빈칸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빈칸을 찾아봅시다. 어떤 연구에서는 칭찬의 대상과 그들을 묘사하기 위한 lexical items에서 놀라운 repetitiveness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lexical items가 뭘지 모르겠으니 넘어갑시다. regularities가 모든 레벨에 존재하고 칭찬들은 사실 formulas라고 합니다. 저는 formulas도 모르겠어서 또 넘어갑시다. 칭찬들이 그들의 positive semantic value를 위하여 형용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80%의 칭찬들은 형용사적인 것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semantic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긍정적인 가치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 합쳐서 72개의 긍정적 형용사가 데이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다섯 가지만이 with any frequency하게 이용된다고 합니다. 즉 다섯 가지만 빈번히 쓰인다는 것이죠. 다른 67가지는 한 두 번 나오는 데에 비해 5가지는 2/3 씩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은 칭찬의 무슨 특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소수의 형용사들이 다른 것에 비하여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이 칭찬의 특성이겠네요. 그렇다면 빈칸에는 일부 소수 단어들만 다른 다수보다 많이 나와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근데 선지에서 그걸 나타내는 내용을 바로 찾기 힘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번, 이국적으로 소리 나는 특성? 아닙니다. 2번, 빈번히 잘못 이용되는 형용사들? 이것도 아닙니다. 3번, 소리 내는 패턴의 반복? 반복에서 이 선지를 고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수의 형용사가 반복되는 것을 찾는 것이지 소리 내는 방식의 반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의미상의 내재적 모호함? 아닙니다. 5번, 독창성의 거의 완벽한 부족함? 일리 있습니다.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단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4. ①

[해석] 온전한 생태계가 있는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중 보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직 보호구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그러한 의존은 보호구역 내의 종과 생태계는 보존되는 반면에 바깥에 있는 같은 종과 생태계는 손상되도록 허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보호구역 내의 생물 다양성의 쇠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많은 종이 보호구역 자체가 제공할 수 없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호랑이는 주변의 인간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사냥하기 위해 자신들의 보호구역을 떠난다.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은 생물 다양성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 보호되지 않는 인근 지역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구역 바로 바깥에 있는 지역들을 포함하여 비보호구역들은 전반적인 보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설] 여기서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풀었던 시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 문장 이후 바로 however가 나옵니다. biodiversity를 보존하기 위해서 protected areas에만 의존하는 것은 shortsighted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안 좋다 이겁니다. 만약 보호 구역에만 의존하면 보호 구역 내의 생물들은 보존되는 반면 보호 구역 밖의 같은 생물들은 damaged 될 수 있다고 하고, 따라서 빈칸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종들이 보호 구역 밖의 resources를 얻기 위해 보호 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예시가 나옵니다. 호랑이들은 사냥을 위하여 보호 구역을 벗어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보통 보호 구역이 작을수록 biodiversity의 long-term 유지를 위해서 보호 구역이 아닌 곳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 구역이 아닌 곳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빈칸은 무슨 결과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호 구역만으로는 biodiversity가 유지될 수 없고 보호 구역 밖의 지역이 biodiversity 보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도의 호랑이들도 자신들 즉 biodiversity의 보존을 위해 보호 구역을 벗어나 보호 구역이 아닌 곳으로 갔고요. 그러므로 빈칸 문장에서 보호 구역만 보호하고 보호 구역이 아닌 곳은 보호하지 않으면, 즉 보호 구역이 아닌 곳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게 만들면 보호 구역의 생물들은 살아남지 못하겠네요. 그러므로 빈칸에는 보호 구역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the decline of biodiversity within the protected areas가 됩니다. 답은 나왔지만 2번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비보호 구역으로의 종들이 이동이 감소한다. 비보호 구역이 damaged 되면 비보호 구역이 더 이상 쓸모없으니 보호 구역의 생물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은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뒤에 나오는 This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빈칸의 내용은 많은 생물들이 보호 구역에서 비보호 구역으로 가야만 resources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보호 구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의 내용입니다.

25. ③

[해석] 우리의 부엌은 과학의 훌륭한 덕을 많이 보고 있고, 스토브에서 혼합 재료로 실험하는 요리사는 흔히 실험실에 있는 화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색을 유지하기 위해 적양배추에 식초를 첨가하고 케이크에 있는 레몬의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베이킹 소

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기술이 단지 과학적 사고를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기술)은 이것(과학적 사고)보다 더 기초적이고 더 오래된 무언가이다. 모든 문화가 기원전 4세기에 Aristotle에게서 시작된 우주에 관한 체계화된 지식의 형태인 형식 과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실험이 가설, 실험법, 그리고 분석의 구조화된 체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현대 과학 방식은 17세기에 이르러서인 근래의 것이다. 요리의 문제 해결 기술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최초 석기 시대 인간이 날카롭게 만든 부싯돌로 날 음식물을 잘랐던 이래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먹여 살리는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발명을 사용해왔다.

[해설] 교육청 문제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도 적절히 어렵고 흔히 말하는 Paraphrasing이 환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은 과학의 총명함에게서 덕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요리사가 stove에서 혼합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은 실험실의 화학자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칸은 틀린 소리라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틀렸는지 봅시다. 빈칸보다는 더욱 basic하고 older한 무언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It이 무엇인지도 차차 알아가 봐야겠죠. 모든 문화에 formal science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의 과학적 방법은 17세기에 와서야 생긴 근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세미콜론 뒤를 잘 읽어봅시다. 요리의 problem-solving technology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석기 시대부터 인간들은 더 잘 먹을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발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의 내용을 통해 빈칸을 추론해봅시다. 뒤의 내용은 formal science는 17세기에서야 생긴 것이고, problem-solving technology는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problem-solving technology가 생기고 나서야 formal science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빈칸의 내용은 틀린 소리라고 하므로, 빈칸의 내용은 formal science가 생긴 후에 problem-solving technology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지요? 물론 보기에 이걸 그대로 적어줄 출제진이 아니겠지요. 하나씩 분석해봅시다. 1번, 과학은 철학과 관련 없다는 것은 틀렸나? 아 뭐 관련이 있어도 없든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2번, 가설은 한 번의 실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나? 저희는 가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3번, 기술은 그저 과학적 사고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은 틀렸나? 이걸 잘 이해해봅시다. 기술이 과학적 사고의 도구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한 것을 기술이라는 도구로써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곧,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기술로써 표현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 사고가 있어야 기술이 있다는 말이고, 결국 과학이 기술을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빈칸 이후의 내용들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후 보기들을 봅시다. 4번, 요리는 형식 과학에서 항상 독립적이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시험이 끝난 후 제가 3번을 주장하고 다른 많은 친구들이 4번을 주장하였다가 제가 옳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4번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천천히 잘 이해해봅시다. cooking은 지문의 problem-solving technology of cooking에 대응되므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rmal science는 그냥 과학입니다. 즉, 4번 선택지를 넣고 문장을 읽어보면 기술은 과학에서 항상 독립적이었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과학에서 항상 독립적이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기술이 과학에서 독립적이었다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이다, 즉 과학이 있어야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술은 과학이 있는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하는 것은 기술은 과학이 있는 후에 생긴 것이 맞은 것입니다. 복잡했지만 결론적으로 4번을 넣은 빈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이 있는 후에야 기술이 생긴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이후에 나온 내용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4번 보기는 정답과 정반대, 3번 보기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5번, 요리는 문제 해결 기술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틀렸나? 우리는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26. ③

[해석]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글자의 간격을 두는 것과 구두법은 간격과 체스처(특정한 감정·의도의 표현)에서 물리적인 인공물로 굳어졌다. 손으로 쓰던 시절에 필기사마다 다르게 사용되었던 구두점은 인쇄된 페이지의 표준화되고 규칙화된 체계의 부분이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Walter Ong은 인쇄술이 단어를 공간에 정확하게 놓인 시각적인 물체로 어떻게 전환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각 글자가 분리된 금속 조각, 즉 활자에 주조되는 알파벳 활판 인쇄술은 최고의 심리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글쓰기는 단어들을 소리의 세계에서 시각적 공간의 세계로 이동시키지만, 인쇄는 단어들을 이(시각적) 공간 안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활판 인쇄술은 텍스트를 어떤 것, 즉, 알려진 크기와 고정된 위치를 가진 물리적인 물체로 만들었다.

[해설] 이 문제는 한 포인트를 포착하지 못하면 감을 잡기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typography가 발명되면서 뭐 어떻게 되었나 봐요. 말이 너무 어렵네요. 다음 문장에서 Punctuation marks는 필기사에 따라 달랐는데 typography의 발명으로 인해 standardized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죠. Walter Ong은 printing이 어떻게 단어를 어떤 공간에 정확하게 위치한 visual object로 만들었는지 보여준답니다. 이상한 말들을 하시고, 빈칸 문장을 봅시다. Writing은 단어를 소리의 세계에서 시각적 공간의 세계로 이동시켰는데, print는 빈칸 했다고 합니다. Typography는 텍스트를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알려진 차원과 고정된 위치를 가진 물질적 물체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Typography = printing인 것 정도는 파악해야지 문제를 푸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printing 혹은 typography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저 Walter Ong이란 사람이 앞서 말했네요. printing이 단어를 어떤 공간에 정확히 위치시켰다고요. 또 빈칸 뒤에서는 Typography가 text 즉 word를 known dimensions와 fixed locations를 가진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를 어떤 위치에 고정시켰다고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locks words into position in this space가 됩니다. 물론 this space는 빈칸 바로 앞에 나온 visual space를 말합니다.

27. ③

[해석] 수필가인 Nassim Taleb은 그가 지녀왔던 고질적인 파다 중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다양한 스포츠를 시작할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비쩍 마르고 행복하지 않아 보였고,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오, 너무나 상위 중산층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고 날씬한 몸으로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그의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전문적인 수영 선수들은 그들이 엄청나게 훈련하여 완벽한 몸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체격 때문에 좋은 수영 선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모델들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그래서 많은 여성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들이 자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여성들을 모델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 단지, 모델들이 매력적으로 태어난 것이며, 오직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화장품 광고를 위한 후보들인 것이다. 수영 선수의 몸과 같이, 아름다움은 선택을 위한 하나의 요인이자 결과는 아니다. Taleb은 위의 경우들과 같은 혼동을 'swimmer's body illusion'이라 부른다.

[해설] Nassim Taleb이란 사람이 살을 빼려고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 선수들은 well-built, streamlined bodies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수영을 시작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 수영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해서 perfect bodies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physiques 때문에 훌륭한 수영 선수인 것입니다. 즉 몸이 좋은 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모델들이 cosmetics를 광고하는데 여성 소비자들은 이걸 보고 그 화장품들이 여성 모델들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걸 써서 모델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델이어서 그것들을 광고하는 데에 뽑힌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것도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Taleb은 이런 사례들을 swimmer's body illusion이라고 합니다. 빈칸에는 수영 선수들의 좋은 몸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도 빈칸이라고 합니다. 빈칸은 단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하죠. 바로 "원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a factor for selection and not the result입니다.

28. ②

[해석] 기술은 우리가 쓰는 많은 은유의 근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은유의 사용과 디자인의 과정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진화]은 은유가 기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은유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순환적이다. 주요 변화는 말이 끄는 마차에서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말이 없는 마차'라는 말에서처럼, 후자(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의 처음의 묘사(설명)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이전 기술과의 연관성은 언어적이면서 또한 시각적이다. 그런 차량의 초기 디자인은 은유의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 주는데, 그것이 말이 끄는 마차의 모습[외양]을 많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이 없는 마차와 이후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말이 끄는 마차도 그 자체가 기술적인 혁신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발명품을 이전의 발명품에 근거를 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관점에서 새로운 발명품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은유는 기술을 shape하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은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Major changes가 발생합니다. 예시로 든 것은 말이 끄는 carriage에서 motor-driven vehicles로의 변화라고 합니다. 초기의 motor-driven vehicles에 대한 묘사는 자연스럽게 은유적이라고 합

니다. 바로 말이 끌지 않는 carriage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기술과의 관계는 verbal이면서 visual이라고 합니다. visual의 경우 초기 디자인에서 vehicles가 말이 끄는 carriage의 외형을 많이 포함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명을 오래된 것에 기반을 둘 뿐 아니라 빈칸의 관점에서 새로운 발명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것도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old"입니다. 예전의 것이 새로운 발명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내용을 짚 읽어왔으므로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what we already know가 됩니다.

29. ①

[해석] Juliet Zhu와 J. J. Argo의 최근 연구는 회의에서 좌석 배치에 미묘한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원형 배치는 사람들의 소속 욕구를 활성화했다는 것을 연구는 알아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집단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고 어느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제안에 설득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좌석 배치가 각지거나(L자 모양을 생각하라) 사각일 때 뒤바뀌었다. 이런 좌석 배치는 고유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지향적이고 자신들의 개인주의를 고양하게 하는 메시지와 제안에 더 관심을 보이고 더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해설] 첫 문장은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 말하네요. 예시에서는 원형으로 앉으면 need to belong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면 This effect was reversed, 즉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belong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angular이나 square의 모양으로 앉게 된다면 need for 빈칸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아마 근거는 뒤에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self-oriented 즉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들의 individualism을 상승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말들에 호의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예상했던 대로 위의 소속감과는 반대로 개인을 돋보일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uniqueness 즉 개인적인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이함입니다.

30. ②

[해석] 일반적인 동물과 마찬가지로, 침팬지 사이의 많은 의사소통은 우리가 알아채기에는 너무 미묘하다. 한 가지 전형적인 예는 Delta Primate 연구소에서 1970년대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여섯 마리의 새끼 침팬지와 관련이 있었다. 그 중 한 마리(우리는 그를 '리더'라 부를 것이다)를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혼자 데려가서 먹이가 감추어진 곳이나 뱀 인형이 있는 곳을 보여 주었다. 이 침팬지가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 밖에서 동료들과 재회했을 때, 그들은 빠르게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리더가 자신의 중요한 지식을 나머지 다른 침팬지들에게 전달했다는 선뜻 드러나는 표시는 없었다. 그러나 리더에게 먹이를 보여 준 후에 여섯 마리를 모두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 집단은 먹이로 직행했다. '뱀(인형)'이 있는 상황에서, 침팬지들은 모두 등의 털을 곤두세운 채로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에 들어갔고 극도로 신중하게 위험 지역에 접근하여 손 대신 막대기로 나뭇잎이 쌓인 곳을 푹꾹 찼다. 리더 침팬지가 나머지 침팬지들에게 정보를 전달했거나, 또는 그들이 기가 막히게 그의 의도에 맞춘 것이었다.

[해설] 침팬지의 소통의 특성을 찾으면 됩니다. 예시에서 침팬지 한 마리 - 여기서는 리더라고 불리네요 - 가 우리 같은 데에 가두어지고 음식 또는 뱀 인형을 보게끔 만들어지네요. 이제 다시 우리에서 나와서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There was no readily apparent sign that the leader communicated his important knowledge to the other chimps. 리더, 즉 우리에게 들어갔던 침팬지가 important knowledge, 즉 음식과 뱀에 관한 지식을 다른 침팬지들에게 전했다는 "명백한 신호"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나오긴 하는데 더 읽어봅니다. 아까에 이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마리를 죄다 우리에게 넣었을 때에 음식을 보면 모두 하나 같이 달려들고 뱀을 보면 놀라는 반응을 합니다. 즉, 연구자들이 관찰했을 때 침팬지끼리 소통을 할 눈에 띄는 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식을 공유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too subtle for us to notice, 즉 우리가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미묘하다/감지하기 힘들다가 됩니다. 매력적 오답은 4번의 readily open to other species, 다른 종들에게 기꺼이 열려있다 입니다. 침팬지끼리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1. ⑤

[해설] 과학 기술 학위는 오로지 여러분이 일자리를 잡고 계속 그 일에 중사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가치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매우 전문적이거나 직업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면, 대학교에 가기도 전에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당연히 알겠지만, 대부분의 과학 기술 학부생들에게 대학교는 그 자체로 모험이다. 즉 어떤 직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덕분에 여러분은 학위가 많은 분야의 일에서 도움이 될 것을 인식하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점을 가진다. 과학 기술 학위 프로그램이 범위가 넓고 접근법이 유연한 경향이 있는 것은 아마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일 것이다. 여러분은 화학을 공부하려 대학교에 가서 물리학과 내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해설] degree는 대략 학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학위는 빈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빈칸을 찾아봅시다. 일단 저는 vocational이 뭔지 모르겠으니 패스합니다. 그러나 앞의 highly specialized를 통해 아마 매우 특화됐다는 것과 비슷한 뜻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이라면 대학 가기도 전에 어떤 career를 목표로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지만, 많은 undergraduates들에게 대학은 모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career idea를 develop할 수 있고 당신의 학위가 여러 분야의 직업에서 도움이 될 것임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다음 문장들이 정답에 중요하죠.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 programs tend to be wide in scope and flexible in approach. 즉 광범위하고 다가가기에 유연하다 즉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마지막 문장에선 화학 배우러 가서 물리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과학과 기술 학위는 사람을 한 가지 분야에만 고정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5번, exclusively to get you into a job and keep you there, 즉 오로지 당신이 직업을 갖고 거기에 머무르도록 만들기 위해 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말

해보자면 과학과 기술의 학위는 오로지 당신이 직업을 갖고 거기에 머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겪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32. ②

[해설] 참가자들에게 재료가 가득 찬 가방을 하나 준 다음 해결할 문제를 주는 것은 창의력 세미나를 하는 동안 흔히 있는 일이다. 그 재료는 보통 일상 용품이다. 그것들의 쓰임새는 모두에게 분명하다. 그런데 그 재료를 사용해서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물품과 문제 사이에는 보통 분명한 연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망치, 테이프, 머리 빗는 솔, 그리고 구슬 한 봉지를 사용하여 여러분은 아마도 통신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전형적인 맥락에서만 물체를 보게 하는, 기능적 고착이라는 인지적 편향이 있다. 그 재료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흥미진진한 해결책은 기능적 고착을 극복하고 이런 일상 용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서 온다. (새로운 쓰임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설] 창의력 세미나에서는 뭔가 많이 던져주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주는 도구와 별 연관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망치, 테이프, 빗, 그리고 구슬을 쥐놓고 통신 수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functional fixedness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보면 본래의 이용목적만 생각한다고 하네요. 망치를 보면 못을 박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해답들은 이런 functional fixedness를 극복하는 데에서 옵니다.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빈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빈칸은 물체에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 nothing is what you think it is, 즉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가 됩니다. 무슨 말이나면, 망치를 보았을 때 이것은 못을 박는 그 망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33. ①

[해설] 심리학에서 어떤 것의 '모델'은 설명되고 있는 그것의 정확한 복제로 결코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의 표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런던 지하철 지도는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지하철 지면 배치도의 표상이다. 물론 방향, 축척 등은 그 페이지에 모두 깔끔하게 들어맞도록 다소 왜곡된 것이 틀림없다. 기억의 모델 역시 표상이다.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델은 우리에게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비유를 제시한다. '저장소' 또는 '단계' 또는 '회로'라는 용어로 기억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특정한 심리학자가 이용 가능한 그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는지에 대한 대략적 개념을 독자에게 간단하게 전달한다. 이 모델들은 이용 가능한 증거가 바깥에 따라 변화하고 따라서 불변의 고정된 것들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해설] 심리학에서 모델이란 정확한 복사가 아니라 어떤 것의 표현/묘사라고 하네요. 그 예시로 런던 언더그라운드 지도를 들고 있군

요. 다음 문장에서, 방향, 크기 등은 종이에 깔끔히 들어가게 하려고 어느 정도 왜곡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억도 묘사입니다. 이용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은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stores, levels, loops라고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심리학자가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에 대한 빈칸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들은 증거가 변함에 따라 변하고, 따라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기서는 앞서 나온 예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런던 언더그라운드 지도에 들어갈 때, 그것은 런던 언더그라운드 자체를 기반으로 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이에 따라 뒤의 기억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봅시다.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모델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다른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비슷하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답은 1번, approximate idea, 즉 대략적인 생각이 됩니다.

34. ③

[해석] 여러분이 지나가는 생각, 감정 또는 기분에 자신이 자꾸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단순한 선택을 하는데 '구별하기' 또는 '동일시하기'이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 또는 여러분은 자신을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둘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이 동일시하지 않도록 구별하는 것을 도와준다. 여러분이 자신의 지나가는 생각, 감정 그리고 기분을 알아차릴 때, '오, 저것은 나의 오랜 친구 Fear야, 저기 Inner Critic이 가네.'와 같이 그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화시키고 여러분이 자신의 균형과 침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내 친구 Donna는 'Freddy Fear', 'Judge Judy' 그리고 'Anger Annie'와 같은 유머러스한 이름을 자신의 감정 반응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기까지 한다. (덧붙이자면 유머는 여러분이 발코니에서 (연극을 보는 듯한) 관점[객관적 시각]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는 데 훌륭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극 중에서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 또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떼어놓게 된다.

[해설] 이 문제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듯합니다. 지나치는 생각, 감정, 느낌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것에 동화된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신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 감정, 느낌들이 당신에게 주는 영향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당신이 균형과 고요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프레디 주디 애니 이런 건 넘깁시다. 마지막 줄은 단순한 재진술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당신은 빈칸입니다. 마찬가지로 균형과 고요를 유지하고 영향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distance yourself from him or her, 즉 그나 그녀에게서 당신을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둬으로써 그것들로부터 받는 영향을 없애고 균형과 감정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애매해보이기도 하네요.

35. ②

[해석] 일부 참가자들에게, 공정무역의 주요 가치는 시장 논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사적인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에 있다. 불공평한 무역 협정, 보호 관세, 품질 기준, 그리고 다른 장벽들이 오랫동안 결합되어 제3세계의 소규모 및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

들로 하여금 부유한 국가들의 수익성이 좋은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왔다. 동시에, 그들은 겨우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을 손상시키는 많은 보조금을 받아 터무니없이 싼 해외 식품과 소비재의 덤핑(헐값 판매)이 자신들의 경제에 넘쳐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에서의 정의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북부의 선진국 시장으로 생산자가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3세계의 많은 생산자 집단들, 그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일부 대안무역 기구,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일부 이윤 추구 기업들, 그리고 많은 인증기관들의 입장이다.

[해설] 몇몇 참가자들에게 공정 거래의 주된 가치는 시장의 논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있다고 합니다. 불균등한 거래, 보호적인 관세, 품질 기준, 그리고 여러 장애물들은 제3세계의 농부들이 부유한 국가들의 이익이 되는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경제가 그들의 수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저해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매우 subsidized하고 말도 안 되게 싼 음식과 제품들로 폭격당하는 걸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건 규제로 안 팔리고 외국에선 엄청 싼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 것들이 안 팔리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역 정의는 생산자들이 기존에는 배제되었던 Northern markets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The global South가 제3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봐서 반대인 Northern markets는 선진국들의 시장을 말하겠죠? 이것이 바로 남측의 생산자 집단,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의 일부, for-profit 기업들, 그리고 많은 certifying 기관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모든 생산자들이 선진국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혹은 모든 생산자들에게 있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네요. 빈칸 바로 뒤의 문장을 다시 봅시다. 제3세계에게 "불공평한" 규제들이 문제라고 했지요. 즉, 불공평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공평하게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righting the market's historic injustices, 즉 시장의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후반부의 전통적으로 배제되었던 (traditionally been excluded)은 2번의 historic과 대응을 합니다.

36. ⑤

[해석] 쇠신과 개혁은 나아가기 위해 되돌아가는 능력에 항상 의지한다. 이 과정의 핵심은 개혁된 관행이 구성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마음속 탐색이다. 건축가는 오랫동안 바로 그와 똑같은 모형으로서 원시 오두막에 기대어왔다. 그것은 건축의 제1원리들에 가능한 한 가까운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조물이지만, 이 구조물에 대한 흔적은 그것을 찾는 건축가의 마음의 눈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 오두막이 물리적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관행의 쇠신을 위한 그것의 중요성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바라는(혹은 요구되는) 사물이 낙원에 있고 현재의 어떤 지도도 그것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에 도달하는 것은 꿈과 소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의 복원은 필연적으로, 원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본떠서 만든 유사물에 근거한 해석일 것이다. 그곳에 도

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기억에게는 합당한 목표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사례를 통해 지금 여기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해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Renewal과 reform은 전진을 위한 후진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key는 본인의 mind에서 reformed practice가 구성될 수 있는 model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난해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축가의 예시를 주세요. 건축가들은 오랜 기간 원시적인 hut을 모델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이 hut은 first principles of architecture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tructure의 자취는 다름 아닌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건축가의 mind의 eye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physical reality에서의 이 hut의 부재는 현재 practices의 renewal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보자면, hut이 physical reality의 상태 즉 실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renewal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중요한 것은 mind's eye라고 했었죠. 이제 다시 난해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paradise에 있고 현재 지도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은 꿈과 소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답니다. 이것의 Reconstruction은 빈칸에 기반을 둔 해석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선 문장들에서 renewal에 중요한 것은 physical reality가 아니고 mind's eye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mind's eye가 되겠죠. 일단 답은 나중에 고르고 더 읽어봅시다. 그곳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즉, mind's eye에는 다다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paradise로 돌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게 합리적인 목적지로 남고, 예시의 방법으로 여전히 현실점점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기억에게 합리적인 목적지로 남는 것은 physical model은 아니지만 mental model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현실점점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reform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은 애초에 within physical reality이기 때문에 반대 내용입니다. 2번은 평가 모델에 대한 무지로 인한 왜곡인데 그런 내용의 언급도 없을뿐더러 그냥 선지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3번은 현시대 structure들의 지리적 위치의 다양성인데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4번은 해석을 잘못 하면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cutoff는 지름길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daring은 위험하다는 뜻인데 솔직히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지름길을 넣고 선지 해석을 하면 지난 관행들로부터의 위험한 지름길로 인한 가능성들인데, 지난 관행들로부터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관행들을 향한 지름길, 관행들의 지름길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름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잘라내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cut off from은 ~로부터 고립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는 과거 관행들로부터의 위험한 단절로 인한 가능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열심히 했으니 판단을 해봅시다. renewal을 위해서는 첫 문장에서 전진을 위한 후퇴, 즉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글의 내용에 어긋납니다. 5번을 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실존하지 않는 물체를 모델링한 유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실존하지 않는'의 의미가 mind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캐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mind에서 모델링을 한 유사한 것, 즉 건축가의 예시를 들자면 이것은 mind에 존재하는 hut, 실존하지 않는 hut에서 모델링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 곧 renewal 혹은 reconstruction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5번이 됩니다.

총 36문제의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질문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KUD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수능 영어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